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9월 24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3장 26-32절

설교제목 : “속죄일과 십자가”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파노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오순절 성령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는 속죄일에 담긴 구속의 그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담겨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중심이 속죄일입니다.(레16장) 우선 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레23:27) 그런데 레23:27의 속죄일 앞에 하(ה) 정관사가 있어서 그 속죄일입니다. 즉 7월 10일의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성경은 번역되지 않았는데, 문장 맨 앞에 ‘아크’란 단어로 시작하는데 ‘유일하게’라는 뜻인데, 7월 10일이 유일한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레23:27에서 속죄의 히브리어가 ‘킵푸림’인데 ‘속죄’란 뜻의 ‘킵푸르’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으로 쓰인 것은 히브리어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속죄일은 완전한 속죄의 날입니다. 한마디로 속죄일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제사장들의 죄도 다 용서받아야 되고, 성소도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합니다.(레23:27) ‘스스로 괴롭게 하며’는 숙어로 금식입니다. 속죄일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공식적인 금식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금식하고, 노동하면 안됩니다.(레23:28) 이 날은 고통과 회개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립니다. 화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집합적으로 받는 말입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예식인데, 속죄예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속죄일 제사를 위해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숫염소 두 마리,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우선 수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일에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죄해야 합니다.(레16:11)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동쪽에 한번, 그리고 속죄소 앞에 일곱 번을 뿌립니다.(레16:14)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의 죄를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숫염소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를 제비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 다른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 쓸 것을 정합니다. 정해지면 우선 하나님께 바칠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레16:15) 이렇게 해서 무엇을 정하게 하는 것입니까? 수소와 수염소를 잡아서, 지성소와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바친 수송아지와 숫염소를 피를 썩어서,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일곱 번 뿌립니다.(레16:18-19)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정결하게 됩니까? 제단이 성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비뽑기한 아세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합니다.(레16:20-22) 이것을 시편 103:2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일후에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벗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나머지 숫양을 번제로 드려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레16:23-24)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동물의 피를 지성소와 성소에 뿌리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깨끗해지냐는 것입니다. 피는 성소에 뿌려지는데, 왜 죄는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중재합니다. 이때 소를 24마리를 잡아서 피를 양동에 받습니다.(출24:6) 그리고 그 피를 1/2는 제단을 쌓아 제단에 뿌리게 하고, 나머지는 백성

들에게 1/2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면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출 24:8) 이것이 무슨 이야기나면 이 순간부터 제단 즉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으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운명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언약체결이후에 성소와 이스라엘이 한 몸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성소가 더러워지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레16:16과 레16:19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부정하고 범한 죄로 말미암아 뭐가 부정해졌습니까? 지성소와 성막과 제단이 부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지성소와 성막과 제단을 깨끗케 하면 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성소가 깨끗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8, 막14:24, 눅22:20)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속죄제의 매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속죄제는 짐승의 피로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을 정결케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곧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죽은 것이고, 예수가 살아난 것이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예수의 죄씻음이 우리의 죄씻음이 된 것입니다. 새언약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를 온전히 깨끗케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속죄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더욱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속죄일은 어떤 날이며 속죄일의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 2) 속죄일에 짐승의 피가 성소에 뿌려지는데 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가를 설명해 봅시다.(출24장)
- 3)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피가 어떻게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새언약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를 온전히 깨끗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졌다고 해서 이후에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한 성전으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깨끗한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